

창간사

이종담

고신대학 의학부 교수
고신의료원 원장
고신의대 의학부장

부산경남지방 이비인후과학회에서 학술지를 출판하기로 의결한 것이 1987년 12월이라고 기억한다. 그때가 정홍경박사가 회장이요 조병우교수가 총무를 맡고 있을 때 라고 기억한다.

이 학술지를 발간하려고 혼자 구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 머리속에서 생각하였다가 지우고 지웠다가 다시 생각하는 것을 몇해동안 거듭하였다. 내용을 어떻게 할것인가. 지부회원들이 호응할 것인가.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등 그러던 어느날 용기를 내어 전경명교수와 박춘근교수께 의논하였다. 내용과 경비에 대해서 걱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이비인후과 학술지가 단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순수 학문적인 연구논문뿐이니 의료일선에서 활약하는 개원하는 선생님들께는 친숙해지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임상적인 문제를 많이 개재하고 개원한 선생님께 친숙할 수 있는 잡지를 지향하는 뜻에서 찬성하여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부산경남지방학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였다. 회의석상에서는 여러 회원의 찬동으로 부산경남지부회에서 발간하기로 가결하였으니 그 고마운 마음 비길 데가 없었다. 이 잡지의 발간을 가결하는 데는 정홍경회장은 물론 부산의대 전경명, 왕수건, 조병우교수, 인제의대 박춘근교수, 고신의대 유태현교수를 비롯한 여러회원 특히 김봉희, 김창준, 윤병용 회원의 적극적인 찬동과 서정범, 강석호, 박홍진, 조기환, 이기진 등 원로회원의 아낌 없는 격려와 전 회원의 협조에 의하여 탄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학술지는 대한 이비인후과학회지와는 달리 그야말로 학문적이고도 임상적인 잡지, 친숙해질 수 있는 잡지가 되게끔 편집하기로 하여, 원저, 종설, 특집, 임상적 여러문제와 의료일선에서의 경험담 같은 것도 게재하여 학문은 물론 실지 임상면, 정서면도 감안하고, 전공의 교육을 위한 문제제기도 겸한 학술지를 만들어 보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출판하자는 결정은 쉽게 되었으나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실지로 책이 출판될 때까지는 2년이 걸렸다. 새로 태어나는데 이만한 산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행히 여러 회원과 왕수건교수와 조병우교수의 헌신적인 노력과 편집위원 여러분의 물심양면의 도움으로呱呱之聲을 듣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며 보람된 일인가 생각되며 금년만큼 충만한 마음으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일찍이 맛보지 못하였다. 첫 발간이라 원고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고 내용도 미흡하나 차차 충실히 질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간을 서둘기로 하였다.

끌으로 창간사를 쓰게 해주신 여러 회원들께 감사하며 이 책을 맡아 발간해 주신 정명당 임정식 사장님께 감사한다.

1989년 12월

바다가 보이는 송도에서